

<<내신 기출 국어 지학사-하편>>

◆차례◆

6. 문학 너머로

- (1) 도요새에 관한 명상 ----- 1쪽 (41문제)
- (2)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탕자나무였다 ----- 24쪽 (27문제)

7. 매듭을 푸는 말과 글

-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 38쪽 (10문제)
- (2)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 ----- 45쪽 (9문제)

9. 책에서 삶을 찾다

- (1) 가시리 / 속미인곡 (면 후일) ----- 53쪽 (52문제)
- (2) 춘향전 ----- 74쪽 (40문제)
- (3) 절정 (수난이대) ----- 97쪽 (17문제)

10. 다매체 시대, 가꾸는 국어

- (1) 문법 요소와 언어 예절 ----- 105쪽 (62문제)
- (2) 매체와 국어 사랑 ----- 125쪽 (8문제)

▶정답-----130쪽

▶해설-----132쪽

(버전: 2020.08.03.) 이전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문제를 풀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오류 정정을 확인!

문의 및 오류 신고: pt005pt (카톡 ID)



갈래	소설, 환경 소설
성격	사실적, 생태적, 현실 비판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 배경: 1970년대 후반(회상부: 6·25전쟁 전후) • 공간적 배경: 동진강 하구(도요새의 도래지)
시점	1인칭 시점(인물별) 전지적 작가 시점
제재	철새 도래지인 동진강 하구의 환경 오염과 분단 문제
주제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비판과 민족의 비극적 역사 현실에 대한 인식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마다 서술 시점이 변화하면서 등장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함.

• 구성

발단	[1부] 재수생인 '병식'은 친구인 '족제비'와 함께 밀렵한 도요새를 팔아 유흥비로 쓰며 생활함.
전개	[2부] 학생 운동으로 대학에서 제적된 '병국'은 낙향하여 동진강 하구의 환경 오염 문제에 관심을 기울임.
위기 · 절정	[3부] 실향민인 '아버지'는 도요새를 보며 고향을 그리워함. '병국'은 환경 오염 문제를 파헤치는 도중 군 통제 구역에 들어갔다가 붙잡히는 바람에 아버지가 병국을 데리고 니움.
결말	[4부] '병식'과 '병국'은 '병식'의 밀렵 행위로 다투고, '병국'은 홀로 자유의 상징인 도요새의 비상을 따라가다가 놓쳐 버리고 말.

• 작품 속 인물의 이해

노무과장	윤 소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물고기 등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 •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안보의 확립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



• 서술 시점의 변화

등장인물의 시점 (1인칭 시점)	1부	'병식'의 시점
	2부	'병국'의 시점
	3부	'나'(아버지)의 시점

■ 통합

작가의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4부	작가의 시점
---------------------------	----	--------

전체 4부로 구성된 이 작품은 각 부마다 시점을 달리하여 서술함으로써 각각의 등장인물의 내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마지막 결말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한 것은 작가가 의도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의 변화는 분단의 이픔,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 등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를 동시에 보여 주며, 각기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을 통해 동일한 사건과 사물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여러 작품을 읽은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 동진강 하구의 오염에 대한 각 인물들의 생각

'나'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아버지)에게 새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로, 오염 때문에 동진강에 찾아오는 새 떼가 줄자 향수도 줄어들고 있음. • 동진강은 독물이 되어 버려 머지않아 새 떼가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말함. 동진강 하구의 오염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짐.
병국	동진강 하구의 오염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함.
노무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오염으로 인한 문제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 새나 짐승이 죽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함. • 환경 오염보다 경제 성장이 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 중심 소재인 '도요새'의 의미

병식	도요새를 밀렵하여 유흥비를 마련하는 병식에게 도요새는 돈벌이의 대상에 해당함.	경제적 이익 추구의 대상
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꿈꾸어 오던 이상이 좌절된 병국에게 도요새는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존재임. • 병국은 환경 오염으로 사라져 가는 도요새에게 관심을 가짐. 	이상, 자유, 동경의 대상. 지켜야 할 생명
'나'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요새는 자유롭게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존재임. • 아버지는 고향 통천으로 돌아가기를 꿈꾸고 있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매개하는 존재

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진읍에 정착했던 그해 가을이던가, 전쟁 전 고향 땅에서 본 도요새 무리를 동진강 삼각주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마치 헤어진 부모와 동기간과 약혼녀를 만난 듯 반가웠다. 너희들이 휴전선 위의 통천을 거쳐 여기로 날아왔으려니, 하고 대답 없는 물음을 던지면 울컥 사무쳐 오는 향수가 내 심사를 못 견디게 굽어 놓았다. 가져온 술병을 기울이며 나는 새 떼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새가 되어 대답하는 그런 대화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새가 고향땅 부모님이 되고, 형제가 되고, 어떤 때는 약혼자가 되어 내게 들려주던 그 많은 이야기를 나는 기쁨에 들떠, 때때로 설움에 젖어 화답하는 그 시간만이 내게는 살아 있는 진정한 시간이었다. 세월의 부침 속에 고향에 대한 나의 향수도 차츰 식어 갔다. 이제 새 떼가 부쩍 줄어든 동진강 하구도 내 인생과 함께 황혼을 맞고 있었다. 동진강이 악취 풍기는 폐수로 변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지금 보는 바다 역시 헤엄쳐 복상하면 며칠 내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던 거리가 까마득히 멀어 보였다. 철새나 나그네새는 휴전선을 넘어 자유로이 왕래하건만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만 해가 갈수록 내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겼다.

(나) 내가 신문 바둑난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대문 초인종이 길게 울렸다. 마루 끝에 앉아 꺾을 씹으며 라디오 유행가를 듣던 종옥이가 대문께로 달려갔다. 초인종 소리로 보아 두 아들 녀석 같지 않았고 여편네가 또 뭘 빠뜨리고 나갔다 황망히 되돌아왔으려니 생각했다.

“누구세요?”

종옥이가 철문 쇠빛장을 달그랑거리며 물었다.

“김병국이라고, 이 집에 살지요?”

바깥의 무뚝뚝한 목소리였다.

종옥이 문을 열자, 장교와 사병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장교는 중위였고, 사병은 상등병이었다. 둘의 거동이 당당한 데다 사병은 총을 메고 위장망 씌운 철모를 쓰고 있었다. 내 가슴이 철렁했고 오른쪽 턱에 경련이 왔다. 전쟁 때 철원 전투에서 왼쪽 다리에 중상을 당한 뒤부터 ㉡놀랄 때나 흥분하면 부교감 신경의 실조증이 나타났다. 병국이가 제 어미에게 돈을 못 타내다 보니 내게 오천원을 돌려 달라던 게 그저께였다. 내가 강 회장한테 돈을 빌려 애놈한테 주었는데 녀석이 그 돈으로 무슨 말썽을 피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엉거주춤 마루로 나섰다. 이런 종류의 일은 울여름 들고 벌써 두 차례였다.

(다) 지난 여름 한창 더위가 짙 무렵이었다. 비(B)공단 성장 비료 석교 공장 노무과장이 어깨 벌어진 젊은이 셋을 거느리고 느닷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일이 있었다. 그 날은 종옥이가 시장에 가고 없어 나 홀로 집을 지키던 참이었다.

“김병국이란 작자가 누구요? ㉢도대체 어떤 위인인지 상판이나 좀 봅시다.”

젊은이 하나가 주먹을 내두르며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내 아들놈인데 당신네는 누, 누구요?”

기세에 눌러 내 목소리가 더욱 더듬거렸다.

“당신 자식이라면 아직 마빡이 새파란 놈이겠군, 그 새끼 좀 봅시다.”

다른 젊은이가 욕박질렀다.

“아들이 지, 지금 입에 없소.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요?”

“그 자식 간 데를 붙어요. 당장 작살내고 말 테니.”

또 다른 젊은이가 방문 열린 큰방과 건넌방을 기웃거리며 말했다. 마흔쯤 되어 보이는 노무과장이란 자가 내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거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병국이란 자제분을 만날 수 없겠습니까?”

노무과장이 젊은이들을 제지시키곤 말했다.

“마루에라도 조, 좀 앉으십시오.”

“앉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단 말이오!”

한 젊은이가 말했다.

“가만있자, 병국일 차, 찾으면…………. 아무래도 힘들겠네요. 자정이나 돼야 돌아오니 나, 난들 행선지를 알 수 있어야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자제분이 우리 회사를 상대로 관계 요로에 진성서를 보냈습니다.”

노무과장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 시 보건과에 접수한 진정서 좀 보십시오.”

노무과장은 마루에 걸터앉아 주머니에서 복사판 서류를 꺼냈다. 종이를 받아 든 내 손이 떨렸다. 방 안으로 들어가 돋보기안경을 찾아 낄 틈도 없이 희미한 글자를 대충 훑어보았다.

성장 비료 석교 공장은 연간 사십 억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다.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20분. 당 공장은 야음을 틈타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여 그 가스가 폐수천(석교천)을 따라 안개처럼 덮쳐 와 동진강 하류로 확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새벽 4시

[A] 10분 동진강 하류에서 오징어잡이에 출어하려던 어민 18명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신한 사건이 있었다. 당사는 기계 밸브가 고장 나서 가스가 샐다고 변명하지만 이런 사건은 일주일을 주기로 이미 수십 차례 반복되었음을 입증하며(관계 자료 별첨), 이로 미루어 당사는 일부러 밸브를 틀어 못쓰게 된 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으로써…….

“정신병자가 쓴 낙선 뭐 더 읽을 필요도 없소.”

하며 한 젊은이는 내가 읽던 진정서를 낚아챘다.

“아, 아들놈이 낸 진정서가 틀림없습니까?”

노무과장에게 내가 물었다.

“분명합니다. 알고 보니 자제분은 이 방면에 상습범이 더군요. 지난 유월에는 풍천 화학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 있었습니다. 풍천 화학 역시 야음을 틈타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물질을 다량 배출시켜 동진강 하류 삼각주 지대의 각종 새 삼백여 마리와 물고기를 떼죽음을 했다가요.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입니다.”

노무과장 목소리가 열을 띠더니 ‘새나 물고기’란 말을 힘주어 강조했다.

“기가 막혀서, 뭐 제 놈이 실신했거나 가족이 떼죽음 당했다면 또 몰라.”

한 젊은이가 가소롭다는 듯 시큰둥 말했다.

“국민 소득 일천 달러 달성에, 오늘날 조국 근대화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줄 선생도 알지요?”

다른 젊은이가 내 눈을 찌를 듯 손가락질했다.

[B]“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미친놈 짓거리를 이번으로 뿌릴 뽀아야 해!”

또 다른 젊은이가 말했다. 그들은 병국이 소재를 두고 다시 한차례 이구동성 샅대질하며, 그놈이 돌아올 자정까지라도 기다리겠다고 마루로 올라왔다.

(라) “선생님이 김병국의 부친 되십니까?”

중위가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예, 예, 그렇습니다만…….”

“보호자로서 저희 부대까지 동행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병국이는 지금 어, 어디 있습니까?”

“부대에서 보호 중입니다.”

“보호중이라니. 녀석이 무, 무슨 사건을 저질렀나요?”

“아드님이 통금 시간에 우리 통제 구역 안으로 무단출입을 했어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 시간에 무단출입자는 발포까지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발포를 해서 병국이가 다, 다쳤나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잠시 시간을 내셔야겠어요.”

“부대가 어딘데요?”

“동남만 일대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삼오철오 부대입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해석을 달리하면 까다로운 사건일 수도 있으나 병국이의 경우를 따져 볼 때는 그리 큰 걱정은 안 해도 좋을 듯했다. 병국

이가 해안선을 따라 남하해 온 간첩도 아니요, 부대 경계 배치 상황을 탐지하려는 첩자도 아닌 이상 무사히 풀려나올 것임이 분명했다. 녀석은 새에 대한 무슨 조사를 목적으로, 아니면 공해와 관련하여 경계 지구 안으로 잠입했음이 틀림없었다.

(마) “그럼 혹 제 아들놈이 철새 휴식 장소나 그 은신처를 찾기 위해 통제 구역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요?”

“글쎄요…….”

“아, 아니면 동진강 하류의 폐, 폐수 오염도를 조사할 목적으로?”

“둘 중의 하나겠죠.”

중위는 알 만하다는 얼굴로 나를 보고 빙긋 웃었다.

“그럼 경찰서로 이첩되는 건가요?”

“가 보시면 만나겠지만 저희 파견 대장님은 무척 인간적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물을 말이 없었다. 중위 어투로 보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안심했다. 어느덧 차는 시내를 빠져나와 석교천을 끼고 사면이 트인 해안 지대를 달렸다 나는 지프 차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황량한 공한지 멀리로 비(B) 공단 공장 굴뚝들이 보였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밀려 연기가 시내 쪽으로 날아갔다. 그 중 삼영정유공장으로 짐작되는 굴뚝에 가스를 태우는 불꽃이 중동 유전 지대처럼 ㉠붉은 혀를 날름거렸다. 그 불꽃을 휩싼 검은 연기가 분진을 날리며 서쪽 하늘로 날아갔다. 삼각주 갈대밭과 해안 구릉 사이로 바다가 보이자, 지프는 휘어진 길을 따라 남쪽으로 꺾어 들었다. 나는 차창을 열었다. 조금 내 섞인 바닷바람을 마시자 ㉡물처럼 누웠던 희열이 내 몸을 달구었다. 나는 바다에 눈을 주었다. 가을 햇살 아래 바다의 잔물결이 반짝거렸다. 나는 바닷바람을 마시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가락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가)는 회상을 통해 과거에 대한 회한과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나) 현재 발생하는 사건을 서술자가 요약하여 직접 제시하고 있다.
- (다)는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을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 (라)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사건을 현장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 (마)는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2. (가)의 '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대상이다.
- '나'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이다.
- 현재의 삶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이다.
- 자유롭게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존재이다.
- 실향민인 '나'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추상적 대상인 감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군.
- ㉡ : 전쟁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증상이라 할 수 있겠군.
- ㉢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인물을 비아냥거리고 있군.
- ㉣ : 감각적인 표현으로 공장의 활기찬 모습을 표현하려 했군.
- ㉤ : 바다와 관련된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르는 모양이군.

가락고등학교 (서울)

4.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병국이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가 드러나 있다.
- 인과관계에 따라 구체적 사례를 서술하고 있다.
- 환경문제가 대두된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하게 한다.
-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5. 병국의 행동에 대한 평가 중 노무과장과 상반된 가치관을 지닌 사람의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감수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군.
- 생태계 보존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군.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자립심을 본받아야겠군.
- 맹목적인 환경 보존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군.
-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무고한 동물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군.

가락고등학교 (서울)

6. [B]의 의미를 <보기>와 같이 파악할 때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보기>

- 사소한 것을 해결하겠다고 일 전체를 망친다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을 쓰고 있다.
- 인용한 속담 표현 중, (㉠)은/는 '사소한 것'을 의미하는 말로 문맥상의 원관념은 '새'나 '물고기'라 할 수 있고 (㉡)은/는 '근원'을 의미하는 말로 문맥상 '근대화', '산업화'를 뜻한다.
-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을 알 수 있다.
- 문제의 근본 원인을 사전에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난 말이다.



갈래	
성격	서정적, 회상적, 체험적, 교훈적
제재	탱자나무
주제	삶의 고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깨달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물에 빗대어 글의 주제를 제시함.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인생의 교훈을 이끌어 냄. 예시의 방법을 활용하여 소재의 의미를 구체화함.

•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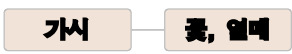
서두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던 고향의 기억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탱자나무의 '가시'에 얽힌 유년기의 경험 성장하면서 생활의 '짐' 때문에 마음속에 가시를 갖게 됨.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가시의 의미
결말	탱자나무를 통해 얻게 된 인생에 대한 깨달음



• '프르테크'의 삶에 나타난 '가시'의 의미와 역할

프르테크의 삶의 여정	가시	역할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다리 한쪽이 좀 짧았으며, 이를 비관하여 불우한 삶을 살았음.	신체적 장애	부정적 역할
절망 속에서도 그림에 몰두한 결과 그의 그림은 아직까지 남아 전해질 정도로 명성을 떨침.	존재를 끌어올리는 힘	긍정적 역할

• '가시', '꽃', '열매'의 관계



탱자나무는 '가시'를 통해 아름다운 '꽃'을 지킴으로써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다. 가시는 그 날카로움으로 꽃을 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탱자나무는 상처(삶의 고통)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열매(성숙한 삶)를 맺게 된다.

• '나와 함께 붉은 나이테를 눌러 가고 있을 탱자나무'의 의미

'붉은 나이테'
메마르고 무더운 여름의 나이테로, 고통을 인내하며 성장해 온 삶을 비유함.

탱자나무
나에게 '고통'의 의미를 성찰하게 해 주는 존재

•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성찰과 깨달음

유년 시절의 일상적 경험	교훈
탱자나무의 '가시'에 얽힌 경험	고통을 받아들여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태도

• 중심 소재 '가시'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변화와 깨달음

탱자 가시로 놀이를 하던 유년기	가시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없음.
--------------------------	--------------------

놀이 중에 가시에 찔려 통통 부은 후	모든 가시에는 독이 들어 있을 것이라 여기며 경계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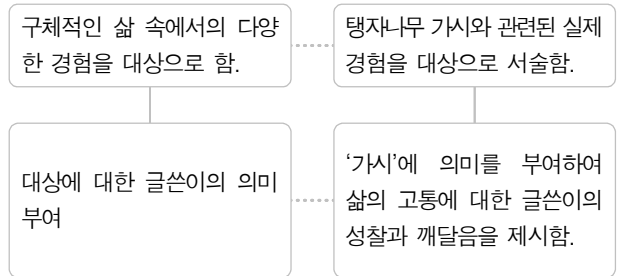
아버지의 가르침 이후	가시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됨.
--------------------	------------------------------------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탱자 꽃잎을 본 후	가시는 때로 자신을 찌를 수도 있음을 알고 슬픔을 느낌.
-------------------------------	---------------------------------

성장기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의 짐 때문에 마음속에 가시가 자라남을 알게 됨. 가시에 찔리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 감을 알게 됨.
---------------	--

'가시'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	'가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됨.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함.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됨.
	바람직한 삶의 태도[교훈]
	'가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잘 다스려 삶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이 작품에 나타난 '경험-깨달음'의 구조



• 감각적 표현의 효과

다양한 감각적 심상(미각, 시각, 후각)을 활용한 표현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금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 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표현 효과
고향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느끼게 함.

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 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뽕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들을 놀려 주던 놀이가 우리들 사이에 한창인 때도 있었다. 자그마한 소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란 고작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찢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나 손이 통통 부었던 적이 있다. 별경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찢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쫓아 보았다.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 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 버리기도 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 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찢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걸 어렵풋하게 느낄 무렵, 소읍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 가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그 손에는 무거운 책방과 영어 단어장이,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때로는 술잔이 들려 있곤 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②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찢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한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③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찢러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다리 한쪽이 좀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창녀촌에서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④“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다리 한쪽이었던 것이다.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 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⑤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 줄 선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뽑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가시 박힌 상처가 별경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다.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 가시로 장난을 치곤 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돌아나리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⑥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언처럼 받아들여진다.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 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 가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트를 늘려가고 있을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질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지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무어라 중얼거릴 것이다. 그리고는 오래 전에 잃어버린 탱자 한 알을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만일 가지들 사이에서 키워 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 나희덕,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구체적 사물에 빗대어 글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일상적 경험으로 인생의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다.
-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소재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힘겨운 삶의 현실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는 말이군.
- ㉡ : 삶의 고통을 부정할수록 그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말이군.
- ㉢ : 삶의 고통을 자기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승화시켰다는 말이군.
- ㉣ : 부족함이 없는 인생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말이군.
- ㉤ : 유년기에 이미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이군.

가락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서 말하는 '가지'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기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
-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
-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
- 겸허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가락고등학교 (서울)

4. 윗글과 주제의식 면에서 가장 유사한 것은?

-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람, 나의 결별
샘 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김광섭, 「저녁에」
-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뇌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홍, 「유리창」
-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고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왜 사냐건
웃지요

-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 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뽀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를 놀려 주던 놀이가 우리들 사이에 한창인 때도 있었다. 자그마한 소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란 고작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 손이 통통 부었던 적이 있다. 별걸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 보았다.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 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 버리기도 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㉕살아 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㉖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걸 어렵풋하게 느낄 무렵, 소읍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 가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이,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때로는 술잔이 들려 있곤 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㉗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한 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

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 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㉘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 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 줄 선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㉙뺏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 나희덕,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마포고등학교 (서울)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대조의 방법을 통해 글의 주제를 제시한다.
- 글쓴이의 직접 서술을 통해 내용을 전개한다.
- 분석적 통찰을 통해 현상의 의미를 밝힌다.
- 반어적 전술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부각한다.
- 단절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다.

마포고등학교 (서울)

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윗글의 글쓴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㉚사소한 경험을 ㉛성찰의 계기로 만들어 삶에 대한 ㉜깨달음을 얻고 있다.

- ㉚는 글쓴이가 어린 시절에 탱자 가시를 가지고 놀다가 가시에 찔린 일화에서 출발한다.
- ㉛는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㉜와 연결된다.
- ㉜의 과정에서 화자는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보편적인 고통의 문제에 대한 사유를 드러낸다.
- ㉜를 거쳐 ㉚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화자는 고통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보여 준다.
- ㉚가 많으면 많을수록 ㉜ 또한 커진다.

마포고등학교 (서울)

7. <보기>는 뒷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사고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 중,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보기>
'가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됨 •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함 •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 줌
↓
바람직한 삶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훈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 |
| <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 ㉣ |
| <input type="checkbox"/> ㉢, ㉣ | |

마포고등학교 (서울)

8. 뒷글에서 '삶의 고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과 역설적 상황이 드러난 문장을 찾아 쓰시오.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삶의 고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 혹은 구절을 2가지 찾아 쓸 것 2) 역설적 상황이 드러난 문장은 본문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찾아 쓸 것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



갈래	
성격	비판적, 논리적, 설득적
제재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
주제	사회적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과 차별 철폐를 위한 대책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한 후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함. 구체적 법 조항의 인용을 근거로 활용하여 내용의 정확성과 주장의 신뢰성을 높임.

• 구성

해당 부분	중심 내용
처음 ~ 260쪽 11줄	연령(나이)에 따른 취업 자격 제한이라는 사회적 차별
260쪽 12줄 ~ 260쪽 15줄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과 이로 인한 위험성
260쪽 16줄 ~ 260쪽 25줄	헌법이 보장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엄존하는 현실
260쪽 26줄 ~ 261쪽 20줄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①: 차별 주체의 문제
262쪽 1줄 ~ 262쪽 5줄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②: 손해 배상액의 문제
262쪽 6줄 ~ 262쪽 12줄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③: 입증 책임의 문제
262쪽 14줄 ~ 262쪽 19줄	차별 방지 대책이 마땅치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
262쪽 20줄 ~ 263쪽 2줄	국가가 차별 금지 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
263쪽 3줄 ~ 263쪽 9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예산 확대의 필요성
263쪽 10줄 ~ 끝	건전한 순환 구조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법의 역할에 대한 기대



• 차별 행위를 금지한 헌법 조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1조 제1항

• 국민 법 조항이 있어도 사법적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

- 첫 번째 이유**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차별에 대해 공법적 성격을 띠는 헌법을 곧장 적용할 수 없다는 점
- 두 번째 이유** 차별 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점
- 세 번째 이유** 차별받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 사법적 차별 문제 해결에 관한 필자의 주장

- 차별 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함.
-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차별 관련 소송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차별 금지 소송의 활성화
- 차별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개혁

• 필자가 생각하는, 차별 금지 소송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
 ‘소송 증가 → 의식 개혁 → 기존 법체계의 한계 절감 → 새로운 법률 제정 → 의식 향상 → 또 다른 한계 절감 → 새로운 법률 제정’과 같은 건전한 순환 구조 안에서 시민의 삶과 법체계가 함께 발전함.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도의 차원에서 이러한 차별의 예방이나 ㉠교정에 실효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런 법 조항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수많은 차별 사례 중 몇 가지만을 예로 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차별 금지에 관한 상당히 넓은 범위의 영역을 이미 규정해 놓고 있는데도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차별을 막는 법 조항이 있음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법을 해석, 적용, 시행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나) 첫 번째 문제점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을 잃은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현상의 상당 부분이 사적 생활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척되어 감에 따라, 국가 권력에 의한 차별보다는 오히려 고용주, 서비스 공급자 같은 사적 생활 관계의 주체들에 의한 차별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헌법상의 차별 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데 반해,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차별은 모호하다. 가해자가 국가이고 피해자가 시민일 때는 피해자가 헌법 조항을 근거로 시정 조치를 국가에 직접 요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개인이면 이런 요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내가 목욕탕에 갔다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헌법을 기초로 그 목욕탕 주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 목욕탕 주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일만 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공법(公法)이 아닌 사법(私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우리 법체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라) 두 번째로, 차별 행위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문제가 있다. 차별을 당한 사람이 독하게 마음먹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배상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원이 드는데 그 결과물인 배상액이 기껏해야 수십만 원이라면 누구라도 소송을 포기할 것이다.

(마) 세 번째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과 인과 관계 등의 입증 책임을 모두 차별당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 사법의 기본 원칙상 ㉤입증 책임은 원고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 기혼 여성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한다고 할 때, 오로지 기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자신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지 못하면 패소한다. 이처럼 차별을 당한 개인이 소송에서 이기기란 매우 어렵다.

영신고등학교 (서울)

1.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차별을 방지하는 법 조항이 없어 사회적 차별이 엄존하고 있다.
- (나) : 사회적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차별 현상이 사적 생활 영역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 (다) :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달리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차별은 헌법상의 차별 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
- (라) : 차별 행위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 배상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다.
- (마) :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과 인과 관계 등의 입증 책임을 모두 차별당한 사람이 지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

영신고등학교 (서울)

2.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가르쳐서 바르게 함
- ㉡ : 전에 있던 제도 따위를 걷어치워서 없앴
- ㉢ : 법률을 제정함
- ㉣ : 소송에서 이기는 일
- ㉤ :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

②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체가 다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서야 차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논의 기간이 짧은 만큼 차별을 방지할만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고작해야 국민 의식 개혁이나 각종 위원회 설치처럼 다분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이다. 물론 차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꽤 손쉬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차별 금지 소송의 증가가 우리 의식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별 행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든, 단돈 십만 원이라 할지라도 손해 배상금을 받아 내는 일이 이어진다면 서서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큰돈이 들고 귀찮은 일도 많아서 현재의 우리 법 제도에서 차별 철폐 관련 소송이 활성화되기는 몹시 어렵다. 지금까지 그나마 몇 건의 차별 철폐 관련 소송들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공익 문제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변호사가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들에게 계속 선의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나는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국가가 개입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 차별 받는 이웃과,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은 변호사들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다름 아닌 ‘돈’이며, 그 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은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지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그 권한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권고하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철폐와 시민권 보호의 진정한 보루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조사’하고 ‘권고’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대리해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져야 한다. 인권을 위해 싸우도록 훈련된 변호사들이 차별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별 철폐와 관련된 소송들이 계속되면 저력 있는 우리 시민들은 차별 금지와 평등의 의의를 빠르게 학습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말뿐인 의식 개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나가는 의식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차별 철폐 소송을 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법체계의 한계에 자꾸 부딪히면 이를 해결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식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새 법을 시행해 나가다가 다른 한계에 부딪히면 또 새로운 법률 제정 운동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①건전한 순환 구조 안에서 시민의 삶과 우리의 법체계는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법의 새로운 역할은 이러한 노력에서 태동할 것이다.

영신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차별 문제에 관한 논의 기간이 짧았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 국가가 개입해야 차별 금지에 관한 소송이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
- 공익 문제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은 차별 철폐 행위의 피해자를 변호하였다.
- 법이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새로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차별 철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에 한계가 있다.

영신고등학교 (서울)

4. ㉠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보기>

소송 증가 → (㉠) 개혁 → 기존 법체계의 한계 절감
 → 새로운 (㉡) 제정 → (㉢) 향상 → 또 다른 한계 절감
 → 새로운 (㉣) 제정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신입 사원을 뽑는 기업체의 공고에 '25세 미만'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이제 막 26세가 된 사람은 아무리 탁월한 기량을 지니고 있더라도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최근 들어 이런 제한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이내인 자'처럼 변형된 조건을 내세우는 곳이 아직 많다. 이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능력있는 많은 사람에게서 취업의 기회를 근원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비단 나이에 따른 차별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성별이나 신체 장애, 종교로 인한 차별이 있는가 하면, 단지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당한 사람도 있다. 이처럼 각종 차별이 일상화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문제에 무감각해질 위험이 있다.

제도의 차원에서 이러한 차별의 예방이나 교정에 실효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런 법 조항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수많은 차별 사례 중 몇 가지만을 예로 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차별 금지에 관한 상당히 넓은 범위의 영역을 이미 규정해 놓고 있는데도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차별을 막는 법 조항이 있음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법을 해석, 적용, 시행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점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을 잃은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현상의 상당 부분이 사적 생활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척되어 감에 따라, 국가 권력에 의한 차별보다는 오히려 고용주, 서비스 공급자 같은 사적 생활 관계의 주체들에 의한 차별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헌법상의 차별 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데 반해,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차별은 모호하다. 가해자가 국가이고 피해자가 시민일 때는 피해자가 헌법 조항을 근거로 시정 조치를 국가에 직접 요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개인이면 이런 요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내가 목욕탕에 갔다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헌법을 기초로 그 목욕탕 주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 목욕탕 주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일만 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공법(公法)이 아닌 사법(私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우리 법체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차별 행위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문제가 있다. 차별을 당한 사람이 독하게 마음먹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배상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드는데 그 결과물인 배상액이 기껏해야 수십만 원이라면 누구라도 소송을 포기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과 인과 관계 등의 ㉢입증 책임을 모두 차별당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 사법의 기본 원칙상 입증 책임은 원고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 기혼 여성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한다고 할 때, 오로지 기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자신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지 못하면 패소한다. 이처럼 차별을 당한 개인이 소송에서 이기기란 매우 어렵다.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체가 다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서야 차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논의 기간이 짧은 만큼 차별을 방지할만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고작해야 국민 의식 개혁이나 각종 위원회 설치처럼 다분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이다. 물론 차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꽤 손쉬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차별 금지 소송의 증가가 우리 의식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별 행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든, 단돈 십만 원이라 할지라도 손해 배상금을 받아 내는 일이 이어진다면 서서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큰돈이 들고 귀찮은 일도 많아서 현재의 우리 법 제도에서 차별 철폐 관련 소송이 활성화되기는 몹시 어렵다. 지금까지 그나마 몇 건의 차별 철폐 관련 소송들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공익 문제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변호사가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들에게 계속 선의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나는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국가가 개입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 차별받는 이웃과,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은 변호사들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다름 아닌 '돈'이며, 그 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은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지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그 권한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권고하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철폐와 시민권 보호의 진정한 @보루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조사'하고 '권고'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대리해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져야 한다. 인권을 위해 싸우도록 훈련된 변호사들이 차별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별 철폐와 관련된 소송들이 계속되면 저력 있는 우리 시민들은 차별 금지와 평등의 의의를 빠르게 학습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말뿐인 의식 개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나가는 의식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차별 철폐 소송을 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법체계의 한계에 자꾸 부딪히면 이를 해결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식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새 법을 시행해 나가다가 다른 한계에 부딪히면 또 새로운 법률 제정 운동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건전한 순환 구조 안에서 시민의 삶과 우리의 법체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법의 새로운 역할은 이러한 노력에서 ©태동할 것이다.

동인고등학교 (부산)

5.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각종 차별이 일상화되면 우리도 모르게 차별 문제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
- 개인 간의 관계는 사법(私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헌법 조항을 근거로 차별 행위의 시정을 직접 요구할 수 없다.
- 제도적 차원에서 차별을 막거나 바로잡은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법이다.
- 불법 차별 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과 그 인과 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몫이다.
- 차별 관한 법 제도의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 세 가지는 주체의 문제, 손해 배상액의 문제, 책임 입증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동인고등학교 (부산)

6. 윗글을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회의원 정모씨는 법률안의 제안 이유에서 “최근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신입생 예비소집 과정에서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일반주택 학생들을 나눠 서류접수를 받았고, 서울의 일부 학부모들은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며 학교 배정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형태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정 계층에게 모멸감을 안길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단지 거주하는 집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천박한 구획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주택의 형태 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윗글에 제시되어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에 ‘거주형태’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주형태’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볼 수 있다.
-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의 한 유형으로 헌법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만 위헌 여부를 알 수 있다.
- <보기>의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권고만을 할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지닌 국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이다.

동인고등학교 (부산)

7. 윗글의 ㉠~㉥에 대한 문맥적 의미를 잘못 연결한 것을 찾으시오.

- ㉠ 만연 : 전염이나 나쁜 현상이 널리 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입법 : 바로 세움
- ㉢ 입증 :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
- ㉣ 보루 : 지켜야 할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태동 : 어떤 일이 생기려는 기운이 싹틈



갈래	, 기록문, 회고록
성격	회고적, 사실적
제재	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
주제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의궤를 반환받게 될 때까지의 협상 과정과 내용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의 진행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함. • 협상 대표들의 발언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생동감과 구체성을 높임.

• 구성

해당 부분	중심 내용
272쪽 1줄 ~ 272쪽 15줄	외교통상부 본부가 의궤 반환과 다른 우리 문화재의 프랑스 전시를 연동하는 새로운 제안을 함.
272쪽 16줄 ~ 274쪽 9줄	의궤 맞교환 방안을 다시 제시한 프랑스와, 이를 거부한 우리나라 협상 대표단
274쪽 10줄 ~ 275쪽 5줄	순환 전시 방식을 제안한 프랑스 측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우리 대표단
275쪽 6줄 ~ 276쪽 6줄	5년 단위로 갱신되는 대여 형식으로 외규장각 의궤를 일괄 양도받기로 한 최종 합의 결과
276쪽 7줄 ~ 끝	이관 방법을 비롯한 세부 사항들에 관한 양국 간 협상의 진행



• 협상의 개념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대안들을 조정하고 재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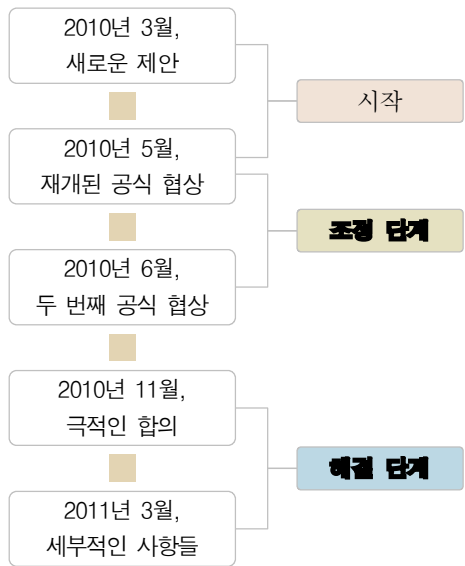
외규장각 의궤의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환 형식이나 절차 등에 관한 대안들을 조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

• 협상의 성립 조건

협상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갈등 상황 - 과거에 프랑스에 약탈당한 외규장각 의궤의 반환에 관한 이견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협상 결과를 이행할 의무를 지닌 참여자들 - 한국과 프랑스 양국 정부
--	---

• 협상의 단계

시작 단계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한다.
조정 단계	문제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며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나간다.
해결 단계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년 5월, 재개된 공식 협상

드디어 프랑스 외무부의 아시아태평양국 국장 집무실에서 외규장각 의궤 반환을 둘러싼 공식 협상이 재개되었다.

장 오르티즈 국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지금껏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는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관계 기관 인사들이 한국 측의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해결책을 다시 모색하는 제안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양국의 우호 관계를 저해한다는 한국 측의 지적에 동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장 오르티즈 국장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다. 양국이 오랜 냉각기를 지나 모처럼 마주한 자리이니만큼 프랑스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협상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어디까지나 1993년에 양국의 정상이 합의한 대전제, 즉 ‘교류와 대역’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협상의 출발점은 2001년 양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일차적으로 합의했다가 한국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의궤 맞교환 방안으로 잡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프랑스 측은 이미 오랫동안 고수해 온 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윽고 박흥신 대사가 말을 시작했다.

“제가 파리에 부임하기 얼마 전,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퀴즈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똥똥지갈이 튀어나온 퀴즈 프로그램 이야기에 프랑스 인사들은 약간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프랑스가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해 간 도서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를 좋아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약탈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 문제로 나올 정도로 외규장각 의궤 문제는 양국의 관계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에 큰 해가 됩니다. 한국의 청소년이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프랑스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볼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박흥신 대사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2001년에 양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합의했던 안이 국내에서 극심한 질타를 받았던 일을 설명했다.

“당시 우리 측 협상 당사자들은 의궤 맞교환 방식이 국내에서 그렇게까지 비난을 받을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의궤 하나하나가 소중한 문화재인데, 프랑스에 있는 의궤를 돌려받는 대신 한국에 있는 다른 의궤를 내준다는 발상은 마치 장남을 구하기 위해 차남을 인질로 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어서 박흥신 대사는, 소중한 왕실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일제강점기로 인해 받은 상처가 더해져 범국민적으로 각인된 우리 국민의 정서를 프랑스 측이 고려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썩기를 박듯이 말했다.

“문화재를 맞교환한다는 생각 자체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의궤를 돌려주는 대신 한국 국민들의 영원한 사의(謝意)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미래 양국 관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 측 인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감동을 받은 건지, 아니면 크게 놀란 건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박흥신 대사의 말을 예측하지 못한 것만은 확실했다.

2010년 6월, 두 번째 공식 협상

두 번째 공식 협상은 우리 측 대사관에서 열렸다. 프랑스 측에서 우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프랑스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방안은 외규장각 의궤를 몇 묶음으로 나누고, 그 중 한 묶음을 한국으로 가져가 일정 기간 전시한 후 다른 묶음으로 교체하는 방식이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의궤를 회전시키자는 의견이었다.

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방안이라며 일축해 버리고 싶었지만, 명색이 외교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 측의 입지만 좁히게 될 무분별한 행동을 할 수는 없었다. 나는 태연한 척 프랑스 측의 제안을 다 듣고 나서 우리 측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외규장각 의궤는 297권을 하나로 묶어 반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묶음으로든 낱개로든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한 장소에서 한 시각에 프랑스 군이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규장각 의궤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2010년 11월, 극적인 합의

두 번째 공식 협상 이후, 프랑스 측은 우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문화재를 일방적으로 양도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로부터 문화재 반환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뭔가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의궤와 교환하는 모양새를 갖춰 줄 것을 우리 측에 요구했다.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2010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5년 단위로 갱신되는 대역’ 형식으로 프랑스가 외규장각 의궤 전부를 한국에 일괄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끝까지 한국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내야 한다고 고집한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를 괴롭혀 온 문제를 해결하여 양국 관계에 새 국면을 열겠다는 최고 정책 결정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 측은 실리와 명분이라는 갈림길에서 일단 의궤를 우리 땅에 가져다 놓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을 내렸다. 해외로 유출된 수많은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는 작업에 ‘대역’라는 형식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프랑스 국내의 상황이라는 넘지 못할 산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산을 우회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 유복렬,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와 외교관 이야기」

구미고등학교 (경북)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프랑스 측은 한국 측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간다.
- 프랑스 측은 의궤 반환에 대해 국립도서관과 정책 결정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낸다.
- 한국 측은 특정한 경험을 제시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한국 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예의를 갖추어 상대측의 주장을 경청한다.
- 한국과 프랑스 양측은 양국의 미래 관계를 고려하여 협상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

구미고등학교 (경북)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내용을 이해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단계	협상 참여자들의 역할
시작	협상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조정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간다.-----㉡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한다.-----㉢
해결	최선의 해결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구체적인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 : 한국과 프랑스의 갈등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으므로 양측 모두 협상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보인다.
- ㉡ :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은 외규장각 의궤 반환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 ㉢ : 프랑스 측이 교류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문화재 반환 요청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 ㉣ : 양측은 모두 자신들이 처음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 ㉤ : 양측은 5년 단위로 갱신되는 대여 형식으로 의궤 전부를 양도하는 방안에 합의한다.

구미고등학교 (경북)

3.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협상 상황]

○○대학교 학생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유료 복합기 대여 업체의 운영 문제점을 제기하고 학교 측에 업체를 바꿔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학생 복지를 위해 업체로부터 장소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업체 대표와 학생대표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협상 자리를 마련했다.

업체 대표 : 먼저 복합기를 학교에 임대할 때 학교 측에 장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맞춰서 대금을 정하려고 합니다. 총 3대의 복합기를 교내에 설치하고 A4 한 장당 30원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학생 대표 : 그 금액은 지난번 업체와 동일한 가격입니다.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복합기 임대 업체로부터 장소 사용료도 받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학생들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업체 대표 : 저희는 최신형 복합기 모델을 새로 구입해서 대여할 것이므로 지난번 업체와는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다를 것이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학생 대표 : 아무리 그렇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복사나 출력을 할 때, 한두 장 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장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래도 그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좀 더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프랑스 측은 의궤를 회전 전시하는 방안을 업체 대표는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한다.
- 한국 측은 역사적 사실을 학생 대표는 상대측의 이익을 근거로 들어 상대측의 양보가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 프랑스 측과 업체 대표는 모두 과거와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여 협상을 시작한다.
- 한국 측과 학생 대표는 모두 자신이 상대측에게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 한국 측과 학생 대표는 모두 집단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상황을 근거로 들어 상대측 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10년 3월, 새로운 제안

외교통상부 본부는 프랑스가 외규장각 의궤 전부를 우리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우리 국내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에 전시할 수 있는 문화재를 프랑스에 전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등가 등량의 교환’을 전제로 진행해 온 협상의 틀을 깨는 꽤 과감한 제안이었다. 어차피 우리로서는 많은 돈을 들여 우리 문화재를 해외에 전시하고 홍보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프랑스에 우리 문화재를 전시하는 대신 의궤를 받아오자는 전략이었다.

프랑스로서는 이 제안이 결코 달가울 리 없었다. 300권에 달하는 외규장각 의궤를 다 내주면 텅 비게 될 서고를 채울 방법이 없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서는 자기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까닭이 없었다.

우리는 어찌 되었건 일단 굳게 닫혀 있는 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의 뚜껑을 열어 보기로 하고, 외교통상부 본부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프랑스 외무부에 전달한 뒤 반응을 기다렸다.

(나) 2010년 5월, 재개된 공식 협상

드디어 프랑스 외무부의 아시아태평양국 국장 집무실에서 외규장각 의궤 반환을 둘러싼 공식 협상이 재개되었다. 박흥신 대사와 내가 우리 측의 협상 대표로 참석했다.

장 오르티즈 국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지금껏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는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관계 기관 인사들이 한국 측의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해결책을 다시 모색하자는 제안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양국의 우호 관계를 저해한다는 한국 측의 지적에 동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장 오르티즈 국장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다. 양국이 오랜 냉각기를 지나 모처럼 마주한 자리이니만큼 프랑스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협상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어디까지나 1993년에 양국의 정상이 합의한 대전제, 즉 ‘교류와 대역’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협상의 출발점은 2001년 양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일차적으로 합의했다가 한국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의궤 맞교환 방안으로 잡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프랑스 측은 이미 오랫동안 고수해 온 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다) 이윽고 박흥신 대사가 말을 시작했다.

“제가 파리에 부임하기 얼마 전,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퀴즈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똥똥지같이 튀어나온 퀴즈 프로그램 이야기에 프랑스 인사들은 약간 어리둥절한 모습이였다.

“그런데 거기서 프랑스가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도서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를 좋아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약탈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 문제로 나올 정도로 외규장각 의궤 문제는 양국의 관계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에 큰 해가 됩니다. 한국의 청소년이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프랑스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박흥신 대사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라) 나는 2001년에 양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합의했던 안이 국내에서 극심한 질타를 받았던 일을 설명했다.

“당시 우리 측 협상 당사자들은 의궤 맞교환 방식이 국내에서 그렇게까지 비난을 받을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의궤 하나하나가 소중한 문화재인데, 프랑스에 있는 의궤를 돌려받는 대신 한국에 있는 다른 의궤를 내준다는 발상은 마치 ㉠장남을 구하기 위해 ㉡차남을 인질로 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어서 박흥신 대사는, 소중한 왕실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일제강점기로 인해 받은 상처가 더해져 범국민적으로 각인된 우리 국민의 정서를 프랑스 측이 고려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췌기를 박듯이 말했다.

“문화재를 맞교환한다는 생각 자체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의궤를 돌려주는 대신 한국 국민들의 영원한 사의(謝意)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미래 양국 관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 측 인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감동을 받은 건지, 아니면 크게 놀란 건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박흥신 대사의 말을 예측하지 못한 것만은 확실했다.

(마) 2010년 11월, 극적인 합의

두 번째 공식 협상 이후, 프랑스 측은 우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문화재를 일방적으로 양도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로부터 문화재 반환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뭔가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의궤와 교환하는 모양새를 갖춰 줄 것을 우리 측에 요구했다.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2010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5년 단위로 갱신되는 대역’ 형식으로 프랑스가 외규장각 의궤 전부를 한국에 일괄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끝까지 한국으로부터 대

가를 받아 내야 한다고 고집한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를 괴롭혀 온 문제를 해결하여 양국 관계에 새 국면을 열겠다는 최고 정책 결정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 측은 실리와 명분이라는 갈림길에서 일단 의궤를 우리 땅에 가져다 놓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을 내렸다. 해외로 유출된 수많은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는 작업에 ‘대여’라는 형식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프랑스 국내의 상황이라는 넘지 못할 산이 닦아 없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산을 우회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140여 년에 걸친 의궤의 유량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 유복렬,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 -

동북고등학교 (서울)

4. (가)~(마)에 나타난 협상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가)에 나타나는 우리 측의 요구는 이제까지의 협상의 틀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다.
- (나)에 나타난 상대측의 요구는 그들의 이익을 조금 내려놓고 한발 물러서 의견 차이를 좁혀갈 수 있는 방안이다.
- (다)의 협상 참여자는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요구가 양국의 우호관계를 해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 (라)의 협상 참여자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양국의 민간 전문가에게 중재를 요구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 (마)의 최종 타협안은 우리 측의 실리와 명분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하는 만족스러운 결과이다.

동북고등학교 (서울)

5. 밑줄 친 ㉠와 ㉡가 가리키는 대상을 쓰고, 이렇게 ‘나’가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한 내용을 <조건>을 고려하여 쓰시오.

<조건>

- (라)에서 찾아 쓸 것
- 비유를 사용해 말하고자 한 내용은 ‘-다.’의 형식을 갖출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년 3월, 새로운 제안

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이 20년 가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프랑스 측에 제시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외교통상부 본부에 거듭 요청했다. 외교통상부 본부는 프랑스가 외규장각 의궤 전부를 우리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우리 국내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에 전시할 수 있는 문화재를 프랑스에 전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등가 등량의 교환’을 전제로 진행해 온 협상의 틀을 깨는 꽤 과감한 제안이었다. 어차피 우리로서는 많은 돈을 들여 우리 문화재를 해외에 전시하고 홍보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프랑스에 우리 문화재를 전시하는 대신 의궤를 받아 오자는 전략이었다.

프랑스로서는 이 제안이 결코 달가울 리 없었다. 300권에 달하는 외규장각 의궤를 다 내주면 텅 비게 될 서고를 채울 방법이 없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서 자기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까닭이 없었다.

우리는 어찌 되었건 일단 굳게 닫혀 있는 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의 뚜껑을 열어보기로 하고, 외교통상부 본부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프랑스 외무부에 전달한 뒤 반응을 기다렸다.

2010년 5월, 재개된 공식 협상

드디어 프랑스 외무부의 아시아태평양국 국장 집무실에서 외규장각 의궤 반환을 둘러싼 공식 협상이 재개되었다. 박흥신 대사와 내가 우리 측의 협상 대표로 참석했다.

장 오르티즈 국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지금껏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는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관계 기관 인사들이 한국 측의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해결책을 다시 모색하자는 제안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양국의 우호 관계를 저해한다는 한국 측의 지적에 동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장 오르티즈 국장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다. 양국이 오랜 냉각기를 지나 모처럼 마주한 자리이니만큼 프랑스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협상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어디까지나 1993년에 양국의 정상이 합의한 대전제, 즉 ‘교류와 대여’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협상의 출발점은 2001년 양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일차적으로 합의했다가 한국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의궤 맞교환 방안으로 잡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프랑스 측은 이미 오랫동안 고수해 온 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윽고 박흥신 대사가 말을 시작했다.

<<전체 정답>>

6-(1) 토요일에 관한 명상

1.③ 2.③ 3.④ 4.④ 5.⑤ 6.㉠ 빈대, ㉡ 초가삼간 7.윗글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보기>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8.① 9.③ 10.⑤ 11.⑤ 12.④ 13.⑤ 14.④ 15.① 16.③ 17.⑤ 18.④ 19.② 20.도요새 21.큰 꿈 22.③ 23.⑤ 24.⑤ 25.② 26.③ 27.① 28. (1) 토요일, (2) 진정서 29.아버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이 해결되어야 한다. / 병국: 자연과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30.④ 31.④ 32.③ 33.⑤ 34.① 35.④ 36.① 37.⑤ 38.① 39.④ 40.⑤ 41.도요새는 병국에게는 자신과 동일시되는 대상이고 지켜야 하는 생명이며 '나'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매개하는 존재이다.

6-(2)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1.③ 2.⑤ 3.② 4.① 5.② 6.⑤ 7.⑤ 8.(1) 가시, 생활의 짐 (2) 그리고, 모른다. 9.③ 10.⑤ 11.⑤ 12.① 13.선물 14.② 15.① 16.③ 17.② 18.⑤ 19. 용모나 육체적 장애, 가난한 환경,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 20.② 21.④ 22.⑤ 23.③ 24.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받아들이고 잘 다스려 삶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② 26.② 27.⑤

7-(1) 차별받지 않을 권리

1.① 2.② 3.① 4.(a) 의식, (b) 법률 5.④ 6.③ 7.② 8.④ 9.② 10.④

7-(2)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

1.① 2.⑤ 3.① 4.③ 5.㉠ 외규장각, ㉡ 다른 의궤, 문화재로서의 중요성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비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6.② 7.⑤ 8.② 9.①

9-(1) 가시리 / 속미인곡 / 먼 후일

1.⑤ 2.① 3.⑤ 4.⑤ 5. 가시논 듯 도서 오쇼셔 나눈 6.② 7.② 8.④ 9.④ 10.⑤ 11.작가는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어렵고, 남성의 목소리로는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12.반백청등 13.④ 14.② 15.③ 16.⑤ 17.④ 18.① 19.② 20.(1) 선흐면 아니 올세라 (2) 서운하면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21.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

우리다 22.③ 23.② 24.③ 25.③ 26.작가는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을 그리는 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웠기에 화자를 이별한 여성으로 설정하여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27.④ 28.⑤ 29.④ 30.③ 31.③ 32.⑤ 33.화자로 하여금 임과 만나는 꿈을 꿀 수 없게 만든다. 34.④ 35.② 36.③ 37.④ 38.④ 39.① 40.② 41.⑤ 42.① 43.③ 44.② 45. '박옥경'-궁월, '구름'-간신 46.② 47.⑤ 48.⑤ 49.③ 50.② 51.④ 52.⑤

9-(2) 춘향전

1.⑤ 2.② 3. (1) 백성의 고통 (2) 언어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 4.① 5.① 6.④ 7.③ 8.① 9.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가 내려왔다. 10.반어법 11.⑤ 12.④ 13.① 14.① 15.③ 16.③ 17.③ 18.④ 19.② 20.② 21.⑤ 22.③ 23.① 24.④ 25.③⑤ 26.② 27.⑤ 28.설화 (암행어사이야기, 열녀이야기), 판소리(춘향가), 고전소설(춘향전), 신소설(옥중화) 29.④ 30.③ 31.⑤ 32.③ 33.③ 34.④ 35.④ 36.② 37.② 38.② 39.⑤ 40.㉠백성의 기름이요 ㉡원망 소리 높다

9-(3) 절정 / 수난시대

1.③ 2.④ 3.① 4.② 5.② 6.⑤ 7.⑤ 8.④ 9.⑤ 10.④ 11.③ 12.① 13.② 14. (A) 낙락장송 (B) 백설 15.③④ 16.① 17.⑤

10-(1) 문법 요소와 언어 예절

1.② 2.① 3.④ 4.② 5.② 6.④ 7.③ 8.② 9.④ 10.㉠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을 이미 정하여진 것처럼 표현함. 11.① 12.② 13.⑤ 14.⑤ 15.④ 16.② 17.① 18.② 19.⑤ 20.④ 21.③ 22.② 23.⑤ 24.보러가는데 → 뵈러가는데 / 할머니가 → 할머니께서 / 좋아할 것 → 좋아하실 것 / 3만원 이십입니다 → 3만원입니다 25.①-시-, -었- ② -이 26. ㄴ-손님, 이 커피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27.④ 28.④ 29.① 30.(1) 주체를 높이는 어미 '-시-'를 사용하여 '음료'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2) 청자에게 '좋은 하루'가 되라는 것은 어색하므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로 고쳐 써야 한다. 31.③ 32.② 33.첫 번째 문장은 단순히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화자의 과거 회상을 통해 여우가 어제 도서